구 연상(숙명여대)

가. 『존재와 시간』의 밑그림

밑바탕 물음: 있음에 대한 물음(Seinsfrage): 잇슴(있음과 임)의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현사실(Faktizität) : 사람은 '잇슴의 뜻하는 바(의미)'에 대한 물음을 물을 줄 안다.

"**현사실(現事實)**"은 하이데거가 근대 철학의 핵심 문제였던 '경험에 앞선 앎의 가능성(선험성)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 낱말로 썼던 것이다. "현사실"은 우리말로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 또는 '**우리 자신이 이미 해나가고(遂行) 있는 일**'이다. 사람은 이미 말을 할 줄 알고, 두 발로 걸을 줄 안다. 말함과 걸음은 사람에게서 현사실이다. 사람은 또한 잇슴의 뜻하는 바를 깨달은 채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존재 이해**[잇슴 깨닫고 있음]'도 사람에게 '이미 일어난 일(현사실/사건)'이다. 이러한 사태를 하이데거는 "사람은 세계 속에 내던져져 있다(das Geworfensein in der Welt)."라고 말한다. '**세계 속에 있음(dsa In-der-Welt-sein)**'은, 근대 철학적 맥락에서 보자면, '정신적 자아(ego)'가 자기 자신과 전혀 다른 것인 '물질적 세계(mundus)'로 "넘어서 있음(초월, 超越, Transzendenz)"과 같다. 근대 철학은 '넘어서 있음'을 체계로써 증명하려 했지만, 하이데거 철학은 이 '넘어서 있음'을 '이미 벌어진 일'로 받아들인 뒤 그것의 '가능성의 근거'를 분석해 나간다. 이것이 곧 '현존재 분석론(Dasein'sanalytik)' 또는 '기촌 존재론(Fundamentalontologie)'이다.

1. 무엇에 대한 물음인가? > 있는 모든 것의 있음의 뜻하는 바(意味)에 대한 물음

(1)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있는 모든 것의 있음'에 대한 물음은 있음의 원인과 근원에 대한 물음이었다. 에네르게이아는 이 물음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었다.

(2) 하이데거는 '있음의 원인'에 대한 물음을 묻는 대신 '있는 것의 있음'의 '뜻하는 바'에 대해 묻는다. 이는 마치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있음의 원인'을 에네르게이아에게서 찾았는가라는 물음을 묻는 것과 같다. 하이데거에 따를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있음의 '뜻하는 바'를 '원인' 또는 ' 근거'로서 이해했기 때문에 '있음의 뜻하는 바'를 '에네르게이아'로써 규정할 수 있었다.

2. 무엇으로써 묻는가? > 말로써 ⇒ 생각으로써

(1) 물음은 말함의 한 방식이다. 말은 경험과 생각을 마디지어 마름질하는 것이다.
(2) 생각은 묻고 응답(應答)해 나가는 과정이다. 물음은 생각을 통해 펼쳐진다.
(3) 말은 생각의 흐름을 작품화한다. 말과 생각은 물음과 대답의 수단이자, 그 목적이다.

3. 무엇 때문에 묻는가? > '잇슴의 뜻하는 바'가 물음(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1) '잇슴 문제'가 '스스로'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물음거리가 된다]

(2) 그 문제가 문제가 되는 까닭은 '잇슴의 뜻하는 바'를 아는 게 필요(必要)하고, 중요(重要)하고, 요구(要求)되기 때문이다. 잇슴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얻는 일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하고, 삶의 바탕이 되며, 끊임없이 새로운 대답으로 채워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4. '잇슴 물음'을 물을 수 있는 까닭(바탕)은 무엇인가? > 그것[바탕]은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잇슴의 뜻하는 바'를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1) 사람은 '잇슴의 뜻하는 바'에 대한 깨달음(이해, 理解)을 갖추고 있다.

(2) 사람은 '잇슴의 뜻하는 바'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진리에 대한 열망, 호기심)

(3) '잇슴 물음'이 있어왔고, 사람의 역사는 바로 그 물음의 역사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5. 사람들은'잇슴 물음'을 어떻게 묻는가? 사람들은 이 물음을 '스스로 묻기'보다 자신이 처한 '전통의 가르침에 따라 묻는다.'

(1) '스스로(das Selbst/ 자기 자신)'는 물음과 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떠맡는 이를 말한다.

(2) 사람들(das Man)은 '널리 받아들여진 대답들'을 되풀이하는 이를 말한다.

6. 왜 우리는 '잇슴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얻고 싶어 하는가?

(1) 만일 '나', '너', '우리'의 '잇슴(어찌 있음/무엇 임)의 뜻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을 제대로[올바로/사람답게/성공적으로/온전하게 ⇒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사람은 '저마다 스스로의 잇슴의 뜻하는 바'를 이루고자 '마음을 졸이기' 때문이다.

(3) 사람의 '마음-졸임'의 까닭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스스로(자기 자신)'가 '죽을 수 밖에 없기' 때문, 즉 '나의 살아갈 수 있음'의 때가 '끝'이 있기 때문이다.

7. '잇슴 물음'이 물어지는 가장 궁극적인(끄트머리)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그 까닭은 '나의 있을 수 있음'의 '때'가 '끝'이 있기 때문이다.

(1) '나'의 있음에는 '있(었)음'(과거), '있음'(현재) 그리고 '있(을 수 있)음'(미래)가 속한다.

(2) 나의 '있음'은 '때(시간)의 세 끝'에 의해 틀지어져 있다.

(3) 때(시간)의 세 끝은 과거의 '첫 끝', 현재의 '너르기 끝', 미래의 '끝남'이다. 지나가 버린 때에도 그 끝이 있다. 그로써 나는 '그 처음 때부터' 있어왔다. 마주한 때에도 그 끝이 있다. 그로써 나는 '이 때'를 마주한다. 아직 오지 않은 때에도 끝이 있다. 그로써 나는 '그 끝날 때'를 향해 달려간다.

(4) '있음의 때'는 '잇슴 물음'을 묻고, 거기에 응답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 사람은 이 물음을 통해 역사적 궤적을 시원까지 멀리 되돌아갈 수 있다.
- 사람은 이 물음을 통해 세계적 지평을 시대를 향해 넓힐 수 있다.
- 사람은 이 물음을 통해 새로운 시원을 준비해 갈 수 있다.

8.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 제목은 '잇슴'과 '때'를 나란히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둘을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속하는 것'으로 이어준다.

(1) 하이데거는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에서 "존재와 시간(잇슴과 때)"라는 말은 잇슴을 때로부터 파악하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동시에 때를 잇슴으로부터 파악한다는 것을 뜻한다.

(2) 형이상학에서 '존재와 생성(잇슴과 됨)'은 존재의 영역이 생성의 영역에 대립되는 것을 뜻하고, '존재와 가상(있음과 겉보기 있음)'은 존재의 영역이 가상의 영역과 대립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방식에 따르자면, '존재와 시간'은 '시간과 대립하는 것으로서의 존재', 즉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존재', 말하자면, '영원한 존재'를 의미한다. 이 경우 존재는 어쨌든 '시간에 의해 제한된 것'으로 해석된다.

(3)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와 시간은 그 둘이 함께 속하는 구조, 즉 진리에서 탐구된다. 진리는 '존재(잇슴)가 시간적으로 열어 밝혀진 모습(Erschloßenheit/Offenheit)'이다. 존재(잇슴)은 언제나 스스로의 죽음 가능성(잇슴의 불가능성)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드러난다. 그로써 존재와 시간(잇슴과 때)의 관계는 드러남으로서의 진리를 통해 파악되어야 한다.

나. "sein"의 낱말뜻

1. es, asus(산스크리트 말)

(1) 하이데거는 이 동사를 "das Leben(삶/생명/살아있음)", "das Lebende(사는 것)", "Eigenständige(자립적인 것)"로 옮긴다.

(2) 이에 대응되는 그리스말은 "esti", 라틴말은 "est", 독일말은 "ist"이다.

(3) 우리말은 "살아있다"가 된다.

2. bhu, bheu(산스크리트 말)

(1) 하이데거는 이 동사에서 그리스말 "phuō(나타나다)", "physis(스스로 자라나다/자연)", "phyein(솟아나다/자라나다)"이 비롯되었다고 본다.

(2) 접두어 "phy-"는 그리스말 "pha-"[phainesthai(현상학 규정)]와 관계된다. 이 말은 '빛(pho) 속으로 들어감', '밝게 드러남', '스스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이에 대응되는 라틴말은 "fui"(완료형), 영국말은 "be", 독일말은 "bin"과 "bist"이다.

(4) 우리말은 "나타나 있다"가 된다.

3. vasami(산스크리트 말)

(1) 하이데거는 이 동사를 '거주하다', '체류하다', '...에 속하다'의 뜻으로 해석하고, 독일말 "sein"과 관계시킨다.

(2) 이에 대응되는 독일말은 "wesen", "gewesen", "war", "Wesen"이다.

(3) 우리말은 "있다"가 된다.

4. ousia / parousia(그리스말)

(1) 이 말은 "Substanz(독일말) / substance(영국말)"로 옮겨졌다.

(2) 하이데거는 이 말을 "An-wesen"으로 뒤쳐 옮긴다. 이 말은 '그 자리에 있어옴', '지속적으로 있어옴', '저 홀로 끊임없이 나타나 있음', '불변(不變)의 현존(現存)' 등을 뜻한다.

(3) "physis"는 '변화의 존재'를 나타낸다.

5. 하이데거의 보기 글월

(1) 신은 있다.
(2) 그 책은 나의 것이다.
(3) 그 개는 정원에 있다.